

# 하이닉스, 구리공정 전환체제 구비

## 김종갑 사장, 2008년 무방류 시스템 도입 ... 정부에 공정전환 신청

김종갑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은 7월25일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 허용 방침과 관련해 “2008년부터라도 (무방류 시스템을 갖춘 체) 구리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김종갑 사장은 조선히텔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중장기 비전> 발표회에서 “무방류를 어떤 형태로 할지 기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 2곳으로부터 무방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검토 후 적절한 시기에 정부에 공정전환을 신청하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허용하면 하이닉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 자체를 바꿔서 허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시설 설치와 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지만 환경을 철저히 보호하는 범위에서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사업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2017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회사가 되려면 비 메모리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그나칩 인수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검토한 일이 없다”면서도 10월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반도체 라인 증설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국내에서 증설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12인치(300mm) 제조라인 비중도 2008년 이후 80% 이상 높아질 것이고 D램과 낸드플래시는 거의 12인치 공정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현재 12인치 라인 2곳과 8인치(200mm) 라인 5곳을 갖고 있으며, 경쟁력 한계에 이르고 있는 8인치 라인은 12인치로 바뀌서 쓰거나 옛 모델이지만 수요가 끊이지 않는 <레거시> 제품 생산에 활용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경기에 대해 “D램 수요가 1년동안 3분의 1로 줄어든 사태가 있었던 2001년과 달리 그 이후에는 시장참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공급초과 진폭이 과거 8%에서 4% 내외로 줄었다”면서 “2007년 초반쯤 D램과 낸드 가격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일부 공급부족 현상마저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익도 리스크도 공유하는 게 아주 필요한 산업이 반도체 분야”라고 전제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쟁기업라고 하더라도 기초 연구 등에서 협력할 게 많다”고 강조했다.

또 2006년 4조3000억원에 이은 2007년 4조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는 매출의 40-50%가 넘는 수준 보다는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 범위에서 매출의 30-40% 선으로 투자 금액을 설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제품 완성을 위한 테스트와 패키징 등 반도체 후공정 분야와 관련해 협력기업 등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한 테스트 하우스 설립과 같은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25>